

“학회 30년, 재도약의 미래 30년,
김창용이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1 김창용



학력 및 자격사항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1986. 03 ~ 1990. 02.	한양대학교	자원공학	공학학사
1990. 03 ~ 1992. 02.	한양대학교 대학원	암반공학(터널)	공학석사
1992. 03 ~ 1999. 02.	한양대학교 대학원	암반공학(터널)	공학박사
2002. 03 ~ 2003. 03.	오스트리아 Technical University of Graz	터널연구소	파견연구원
2007. 06.12.	토질 및 기초 기술사		07181010021S



우리 학회 활동

기간	내용	기간	내용
2004.06.~ 2020.03.	논문집 편집위원회	2006.05.~ 2008.05.	터널 표준시방서 개정 전문 기술위원회
2005.04.~ 2009.04.	학회 이사	2009.07.~ 2010.06.	조사 및 정보 기술위원회 운영위원
2005.07.~ 2010.06.	도심지터널 기술위원회	2010.04.~ 2016.04	대정부 전담이사
2006.02.~ 2006.05	ITA-WTC 2006 총회 및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홍보분과위원	2016.04.~ 2018.04.	학회 이사
2006.05.~ 2007.05.	터널 설계기준 개정 전문 기술위원회	2018.04.~ 2020.04.	터널지진 특임이사
		2018.04.~ 2020.04.	사업담당 부회장



주요경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994. 04.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실 입사	연구원
2002.03.~ 2003.03.	오스트리아 Technical University of Graz 터널연구소	파견연구원
2013.06.~ 2015.0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Geo-인프라연구실	실장
2015.01.~ 2016.0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2016.05.~ 2018.0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융합연구소	소장
2019.01.~ 2021.0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차세대인프라연구센터	센터장
2021. 07.~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본부	선임연구원

| 주요 공공부문 지원 |

2007.07.~ 2009.06.	부산지방항공청	설계자문위원
2009.02.~ 2012.12.	K-water	기술심의위원
2009.08.~ 2017.08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자문위원
2011.01.~ 2019.01.	국토해양부	도로분야 총사업비 심의위원
2011.07.~ 2013.06.	부산지방항공청	설계자문위원회
2014.01.~ 2016.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문위원
2014.01.~ 2016.01.	새만금개발청	설계자문위원
2015.01.~ 2018.12.	국토교통부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위원
2016.01.~ 2018.01.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
2016.02.~ 2022.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2016.03.11.~ 계획확정 시까지	전라남도	서울~제주간 KTX 건설 민·관 추진위원
2017.01.~ 2019.01.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 조사위원회 위원
2018.05.~ 2022.04.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
2018.06.~ 2022.05.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자문위원
2020.03.~ 2021.02.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2020.05.~ 2022.05.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

| 주요 연구주관 |

2004.01.~2006.12.	[건설교통부]SMART 터널 OBSERVATION EXPERT SYSTEM 개발	연구책임자
2005.05.~2007.12.	[삼성물산]영상정보를 이용한 터널 막장면 관찰 및 계측 시스템 개발	연구책임자
2005.01.~2005.12.	[과학기술부]국제 터널 시공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	연구책임자
2008.06.~2009.12.	[국토교통부]도로설계 편람(터널편) 개정 연구	연구책임자
2010.05.~2011.12.	[국토해양부]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연구책임자
2012.04.~2015.01.	[국토교통부]대심도 지하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	연구책임자
2013.12.~2017.0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온라인 암판정 운영모델 개발 및 실용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2014.12.~2020.0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대심도 복층터널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연구단장
2020.04.~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심 지하 교통 인프라 건설 및 운영 기술 고도화 연구	연구단장
2019.01.~2019.0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Urban Loop형 차량 탑재 고속 이동체 및 인프라 기술개발 사전기획	연구책임자
2019.01.~2019.08.	[한국철도기술연구원]초고속 가이드웨이 인프라 및 안전진단 시스템 구축 기술분야 연구(hyperloop)기획	기획참여

| 상훈 및 활동 |

기간	내용	기간	내용
2004. 04. 21.	[국무총리표창] 행정자치부(과학기술발전 유공)	2014. 09. 25.	[국회 정책 토론회 주제발표] ‘대한민국 땅속 안전한가?’ 싱크홀 진단과 대책
2010. 11. 09.	[특별상]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2018. 11.~ 2018. 12.	[남북철도 공동조사] 동서해선 북측구간 현지조사(통일부)
2011. 01.	[학회장상]대한토목학회	2019.	[지하 대심도 건설기술 대토론회] [도심지 지하 건설 현장 팸투어] [지하 대심도 건설기술 안전 홍보관]
2013. 12. 31.	[장관표창] 국토교통부(국토교통업무 발전 기여)	2019. 02. 22.	[장관표창]국토교통부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 기여)
2014. 03. 20.	[기술상]한국지반공학회	2021. 03. 26.	[서울외신기자클럽] GTX 외신기자 간담회 발표
2014. 08. 26.	[100분 토론 649회, 출연]‘공포의 싱크홀’ 그 실태와 원인은?(MBC)		
2014. 09. 24.	[국민안전기술포럼 주제발표]“싱크홀”과학기술 로 해결할 수 있는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15대 터널지하공간학회 회장선거

기호1 **김창용** 후보 공약집

과거
터널

30

년
재도약의
미래

30년



사단
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서문

학회의 지난 30년간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며, 새롭게 재도약하는 학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23년간 우리학회에 봉사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간 축적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래 30년 터널분야 발전 토대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깊게 고민하고, 많은 회사들과 국가를 위한 뜨거운 사회적 터널 이슈들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우리들의 역사이신 시니어 회원들과 우리의 미래인 젊은 회원들 누구나 동참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학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나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익숙한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소통과 정보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외된 터널 전문분야를 지원하고, 많은 터널업계 회원들을 대표하여 터널 활성화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터널지하공간학회의 미래 30년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2021년 0월 0일

기호1 김창용 후보



미래를 대비하는 뜨겁고, 열정적인 학회

우리학회 과거 30년의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터널분야 후배들의 미래 기반을 준비하기 위한 고민과 대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 따른 정보기술 발달로 건설 산업 전반에 급속도의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 터널분야 발전 방향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뜨겁고, 열정적인 학회를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기호1 김창용 후보의 약속

- ① 과거 30년을 분석하고, 미래 30년 우리학회가 나아가야할 미래 방향을 예측기획하는 가칭 “미래 30 위원회”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시니어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미래 방향을 찾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② 과거 정책과제의 맥을 이어,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가칭 “터널 미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지금이 아닌 미래 세대가 연구하고, 다듬어야할 분야를 개척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 ③ 젊은 터널인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비용을 할당해 미래 시드 성격의 과제를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디지털 건설기술 전문가와 디지털기술 습득에 관심많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디지털기술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여기서, BIM, Ontology, AI등 최신 디지털 기술의 연구성과들과 실무 적용사례를 조사하고 취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실무 적용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이슈를 잘 대응하여 믿음과 신뢰를 주는 멋진 학회

도심지 터널은 과거에서부터 추진해오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을 사업을 믿지 않고, 정부는 민간 사업자 책임으로 돌립니다. 결국 학회가 이러한 사회 이슈들을 대응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안전 관련 법적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사고 예방 및 안전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학회차원에서 ‘안전’ 지원이라는 공적인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설립 이후 30년간의 학계 및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온 터널지하공간학회에서 이러한 국가적인 안전도 제고 요구 및 산업계의 안전대응 노력에 부응할 때입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기술 등 사회 이슈에 대해 학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중재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호1 김창용 후보의 약속

- ① 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가칭 “갈등 관리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원인, 대책 등을 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신뢰감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대응이 곤란한 민원, 시공사에 대한 불신으로 민원 등 대응 시, 학회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술적 정보 제공을 통해 오해의 여지를 불식시키고 민원의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② 우리학회에서도 관련 분쟁사례 및 해결사례 등을 DB화하여 분야별 대응 시나리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③ 터널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학회를 제일 먼저 찾게 되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④ 다학제적 분야, 시공경험이 많은 회원, 학식이 높은 회원 및 전문성이 높은 회원들로 구성된 ‘학회 용역수행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회 용역의 투명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⑤ 각 기관의 터널관련 설계기준에 대한 유연한 유권해석과 폭넓은 현장적용을 위한 기준분과위원회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터널신문고”를 신설하여 설계 및 시공에 관련한 질문과 현장의 고충을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문제점)

우리학회가 30년의 전통이 쌓인 시점에서, 기존에는 느끼지 못했던 회원들간 세대차와 학회활동 주류 세대의 전환이 되고 있음이 점차 많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기존 학회의 기반을 만드셨던 학회 선배님들, 우리 학회의 현재와 미래인 젊은 세대 간에 어색하지 않은 소통과 만남의 기회와 분위기조성이 중요할 때입니다. 누구나 어색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고, 항상 만나면 반갑고 사랑스런 따뜻한 학회 분위기로 이끌겠습니다.

찬란한 과거 30년에 이어지는 미래 30년은 젊은 세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 우리 학회의 잠재회원인 학생들의 관심과 진출을 터널분야로 집중시키기 위한 학회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호1 김창용 후보의 약속

- ① 시니어 경험자들과 젊은 층을 매칭해주는 멘토/멘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젊은 층의 열정과 시니어의 경륜이 터널/지하공간 학회의 가치를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 ② 터널 공정별로 구분하여 매칭 되도록 하여, 관련 분야 간 연계 그리고 세대간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③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멘토/멘티 운영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④ 학회 행사 등에 대학생, 대학원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생위원회’를 검토해 운영하며,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술 경진대회나 UCC 경진대회 등을 기획하여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상기한 멘티/멘토 제도와 연계시켜 보겠습니다.

뉴스나 매체를 통해 자주 볼 수 있는 친절한 학회

바야흐로 디지털뉴딜의 시대, IT를 넘어선 인공지능의 시대로 넘어 섰습니다. 신문지와 TV를 넘어 SNS, 유튜브와 메타버스로 홍보와 공유의 시대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학회의 이미지 제고와 자리매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가족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하고, 학회의 사회적 기여와 위상을 널리 인정받게 만드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토목공학회 및 지반공학회는 (Youtube 등) 온라인 플랫폼 등 자체 채널을 운용 중인데 반해 우리 학회는 독자 채널이 없고, ‘터널’을 키워드로 찾을 경우 토목학회의 동영상만 검색되는 실정입니다.

기호1 김창용 후보의 약속

- ① 가칭 “미디어 위원회”를 두어, 일간지 및 홍보 매체 등에 중요 사안에 대한 학회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소소한 학회 활동이라도, 매체에 홍보하여 전문학회로서 우리 학회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 ③ 미디어계통 전문가를 이사로 위촉하여 관련 분야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 ④ 학회 회원들과 일반 초·중·고등학생에게도 터널 및 지하공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유튜브용 영상 제작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스마트한 학회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학회의 기능 및 역할의 유지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속 가능한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 학회가 추구하고 있는 학회 회원의 소통과 권익 증진의 가치를 달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초창기 학회의 자료들이 서고에 놓여 있고, 전문기술자료들이 개인 책상과 책꽂이에 잠자고 있습니다. 과거의 학회에서 발간한 도서 및 보고서들도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학회자료들을 디지털화 하고 회원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호1 김창용 후보의 약속

- ① 페이스북과 같은 SNS나 유튜브 등 실시간으로 제공이 가능한 영상, 발표자료 및 회의자료 등을 연동하여 회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한 학회 운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② 팬데믹으로 익숙한 비대면 회의방식을 각종 행사 및 토론회 등으로 확대하여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오픈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 ③ 누구나 편하게 주제를 정하고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학회의 기능을 좀 더 개인 영역에 까지 확대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학회 초창기부터의 생산된 논문집, 프로시딩, 학술지, 보고서, 행사자료 등 각종 자료들을 ‘디지털 정보화’ 하고, 학회 행사(학술대회)도 동영상 자료화 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⑤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 자료실을 재정비하고, 검색 기능도 강화하여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공유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겠습니다.
- ⑥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비회원, 회원 모두 누구나 편하게 유익한 자료 및 정보들을 얻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⑦ 학회 SNS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회원사 및 회원 소개 등 광고 공간, 워크 그룹활동, 전문가 Q&A 등 지식 공유 공간, 오프라인과 온라인컨퍼런스 학술 공간 등으로 구분해 기획하겠습니다.

소외된 전문분야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든든한 학회

터널보강, 차수, 계측, 발파 등 터널 내 전문분야에서는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이유로 많은 관심도 받지 못해 왔습니다. 작지만 터널분야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적으로 소외된 전문분야의 기업과 회원들에 대해서는 학회가 나서서 보호해 주고 대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호1 김창용 후보의 약속

- ① 우리 학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경쟁분야나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분야(계측, 보링그라우팅, 굴착 및 지보, 발파 등)에 대한 제 기준들을 학회차원에서 제안하겠습니다.
- ② 국토부나 관련 부처에 해당 내용들을 반영하여,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풍토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③ 기술위원회 중심의 전문분야 위원회를 개설하여 관련 분야 니즈를 충분히 수렴하고 대응하겠습니다.
- ④ 학회 소통공간의 회원사 및 회원 소개 등 광고 공간을 전문분야 회원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겠습니다.

7 회원 역량 강화와 학회 국제화를 지향하며 먼저 다가가는 학회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 맞추어 터널분야도 스마트화 되면 빠르게 기계화 자동화 지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우리 학회 회원들의 기술 역량 강화와 미래의 터널기술의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학회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역량강화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듣고, 미래 기술동향을 회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알리는 학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한국의 터널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자리매김하는데 학회가 먼저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 먼저 다가가 리딩그룹의 선봉에서 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호1 김창용 후보의 약속

- ① 최근 이슈(기계화굴착, BIM 활용 등) 및 동향 변화(스마트건설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를 적극 반영한 특별강좌를 진행하여 모든 회원들이 터널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짜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② 터널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기술(AICBM) 교육 실시 및 ‘스마트건설기술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③ 해외 설계사 등을 초청하여 최신의 코드를 이용한 설계기법, 트렌드 등을 소개하고 국내 설계사와의 기술교류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시공경험이 많은 국내 시공사를 초빙하여, 해외 설계/시공에 대한 성공사례와 경험들을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④ 국제사회에 한국의 터널기술이 자리매김하고 한국의 터널인이 세계 무대의 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제 전문가 학술활동 및 국제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과거 터널 30년, 재도약의 미래 30년!!”

기호1 김창용이 앞장 서겠습니다!

